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19. 3. 10(일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국제항공과	담당 자	·과장 신윤근, 사무관 김민정, 사무관 김수정 ·☎ (044) 201-4215, 4213	
보 도 일 시	2019년 3월 1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0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

## 한-프랑스, 인천-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 한-프랑스 항공회담 통해 항공편 확대 협력... '20년 동계시즌부터

- 패션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졌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3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한-프랑스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항횟수를 2.5단위\*(최대 주 2회, 2020년 동계시즌 이후)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.
  - \* 현재 28단위 → 2020년 동계시즌부터 30.5단위  
(우리 측 대한항공 주 7-8회, 아시아나 주 5회, 프랑스 측 에어프랑스 주 7-10회 운항 중)
  - 특히 이번 항공회담 합의는 작년 10월 개최된 한-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, 양국 간 정상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더욱 의의가 크다.
- 그간 인천-파리 노선은 탑승률이 연평균 85%를 상회해 이코노믹 기준으로는 1년 내내 거의 만석이고, 특히 여름 등 성수기에는 탑승률이 90%를 넘나들어 항공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.

< 인천-파리 최근 3년간 월별 탑승률 >
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평균
'16년	78%	79%	71%	77%	79%	88%	90%	86%	85%	86%	79%	82%	82%
'17년	90%	90%	82%	85%	84%	88%	88%	87%	89%	81%	79%	77%	85%
'18년	87%	85%	82%	86%	83%	89%	91%	90%	89%	88%	80%	76%	86%

- 이에 우리 정부는 인천-파리 노선의 운항 횟수를 증대하기 위해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고 프랑스 측에 항공회담 개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나,
  - 프랑스 측이 운항 불균형과 우리 항공사의 한-프랑스 항공시장 잠식을 우려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와 2000년 이후 개최된 항공회담의 절반 이상(9회 중 5회 결렬)이 결렬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.
-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항 횟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간 높은 탑승률로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던 인천-파리 노선의 항공권 구매 및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항공회담 합의를 통해 향후 프랑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고, 양국 간 인적·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민정 사무관(☎ 044-201-4215), 김수정 사무관(☎ 044-201-42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